

## 18) 후두암 치료후 음성보존의 성적

가톨릭대학 의학부 이비인후과학교실

김형태\* . 김형주 . 김민식 . 조승호 . 서병도

후두암의 치료는 병변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양하고 그 예후 또한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초기 후두암에서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이 비슷한 치료결과를 보이고, 진행된 후두암에서는 수술적치료가 더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성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자들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간 강남성모병원에서 후두암치료를 받았던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치료방법에 따른 음성보존 성적을 분석하였다.

1. T1 성대암 환자 18명중 16명 (88.9%)에서 방사선치료 또는 수술로써 음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2. T2 후두암 환자 11명중 6명은 수술후 음성보존이 가능하였다.
3. 진행암환자 (T3, T4) 50명중 33명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중 16명 (48.5%)은 후두부분 또는 근전적출술 및 기관-식도 누공술에 의해 음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었다.
4. 진행암환자에서 유도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병용요법만을 받은 17명 모두 6개월 이내에 재발하였고, 수술 혹은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병용한 33명중 27명이 최소한 6개월 이상 평균 2년 이상의 무병상태였다.
5. 후두부분 또는 근전적출술은 총 81명중 28명에서 시행되었고 그중 5명 (17.9%)에서 재발하였다.